

Heinz Kohut의 인간이해와 기독교상담

김 준*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정신분석 성격이론들 중에서 최근에 그 영향력이 두드러지고 있는 Heinz Kohut의 자기심리학(self psychology)적인 인간이해의 기독교 상담에의 연관성과 그 한계를 고찰한다. 기독교상담이 학문의 특성상 심리학의 이론들을 자주 사용하지만 기독교와 심리학 사이에는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글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심리학의 한 성격이론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의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먼저 성경적 인간이해의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의 개념에 기초한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죄인' 된 모습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Kohut의 인간이해가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심리학적으로 확증하며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죄인 된 모습의 인간 한계를 잘 기술하지만 '자기'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기독교적 인간이해와 근본적으로 상충됨을 주장한다. 또한 Donald Capps의 접근방법을 예로 들며 과도한 자기심리학적 해석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담사례 분석을 통한 자기심리학과 기독교상담의 연관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며 이 글을 마친다.

중심단어 : 하인즈 코헛, 자기심리학, 성격이론, 하나님의 형상, 수치심

• 논문 투고일: 2013년 4월 15일

• 논문 수정일: 2013년 4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4일

*충신대학교

www.kci.go.kr

I. 여는 글

사람의 정서와 행동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상담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는 상담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심리학과 상담이론들은 각각의 독특한 인간과 인간 문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 기독교상담에서도 Larry Crabb이 지적했듯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론과 실제 사역에서의 적용이 결정된다.¹⁾

인간을 이해하는 성격이론들 중에서 정신분석의 전통만큼 인간이해에 관심을 갖고 포괄적인 체계를 정립한 심리학 이론도 드물다. 현재 임상현장에서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단기치료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전통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유효한 것은 인간의 욕구에 대한 설명을 넘어 인간 행동의 의미를 다루는 통합적인 성격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 George Klein은 정신분석은 단순히 인간행동의 근접한 원인을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의 관점에서 무의식의 의도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 방어, 걱정, 죄의식, 그리고 무의식적 환상의 역동성을 다룸’을 지적한다.²⁾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은 ‘어떻게(how)’ 뿐만 아니라 ‘왜(why)’란 질문을 통해 인간 행동의 목적, 의미 그리고 중요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은 신학에서 다루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의미, 삶의 목적 등에서 관심의 영역이 겹쳐지기 때문에 주류목회상담학에서 정신분석이론들과 신학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론을 주로 택한다.

이렇게 기독교상담이 학문의 특성상 심리학의 이론들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데 있어 문제점은 기독교세계관과 다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발전된 심리학의 거의 모든 이론들이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서 인용될 때

1) Larry Crabb, *Understanding People: Deep Longings for Relationship*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7), 87.

2) George S. Klein, “Two Theories or One?”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37, no.2(1973): 112.

잠재적인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³⁾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은 기독교와 심리학 사이의 갈등을 인지하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심리학이론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기독교상담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상담으로 고유한 인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인간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심리학의 한 성격이론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의 한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 논문은 정신분석 성격이론들 중에서 최근에 그 영향력이 두드러지고 있는 Heinz Kohut의 자기심리학(self psychology)적인 인간이해와 기독교상담과의 연관성과 그 한계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먼저 성경적 인간이해의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의 개념에 기초한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죄인' 된 모습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Kohut의 인간이해가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심리학적으로 확증하며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죄인 된 모습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잘 기술하지만, '자기'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기독교적 인간이해와 근본적으로 상충됨을 주장한다. 또한 Donald Capps의 접근방법을 예로 들며 과도한 자기심리학적 해석은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담사례 분석을 통한 자기심리학과 기독교상담의 연관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며 이 글을 마친다.

3) 기독교와 심리학 사이의 갈등과 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책으로는 Eric Johnson이 편집한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가 있다. 이 책은 기독교와 심리학의 관계를 다섯 가지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Eric Johnson,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2nd, ed., 김찬영 역,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II. 펴는 글

비엔나 태생의 Kohut은 의과대학에서 학업 중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 그는 시카고 정신분석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전통에서 훈련을 받았고 연구소에서 명망있는 정신분석가와 교수로서 활동을 하였다. 그 당시 Kohut의 정신분석접근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는 자기애적(Narcissistic)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면서부터다. 그는 프로이드의 본능(instinct)에 의존하는 욕동모델(drive model)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경험한 후, '자기'의 새로운 이해에 기초한 자기심리학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자기심리학이 '관계의 심리학'으로 알려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심리학의 여러 특성들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마도 '상호관계성'에 대한 강조일 것이다. Gardiner는 자기심리학과 함께 관계를 강조한 이론으로 알려진 대상관계이론이 인간의 발달목표를 '개인화(individuation)'에 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상호관계성의 특성을 강조한다.

“대상관계이론에반하여, 자기심리학은 모든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의 틀에 살아가는 인간을 본다. 자기심리학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발달과정의 목표를 성숙한 상호의존과 덕목으로 본다. ... 자기심리학은 성숙의 모델로서 독립을 강조하기보다는 상호의존을 강조한다.”⁴⁾

이러한 자기심리학에서의 '인간관계'의 강조는 기독교상담의 인간이해와 연관하여 공통된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아래에서 언급되듯이 기독교적인 인간이해의 핵심도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4) Judith K. Gardiner, "Self Psychology as Feminist Theory," *Signs* 12, no. 4(1987): 772.

1. 기독교상담의 인간이해의 틀: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죄인으로서의 인간

기독교상담에서 성경적 인간이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창 1:26-27).⁵⁾ 조직신학자 Hoekema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속에서 삼중적 관계 속에 놓여있는 존재이다. 삼중적 관계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동료인간에 대한 관계성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계성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 속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시간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태초부터 종말을 향해가는 네 가지 단계로서 본래의 형상, 왜곡된 형상, 새롭게 된 형상, 온전한 형상이다.⁶⁾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죄인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인간이해의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연결시켜볼 때, 사람은 동료인간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존재이지만 타고난 죄성 때문에 인간관계가 완벽하지 않고 인간관계 속에 다양한 아픔과 상처가 존재함을 이해하게 된다.

기독교상담의 인간이해에 있어서도 인간의 '관계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Tim Lane과 Paul Tripp은 창세기 2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사람은 '공동체적 존재'이며 '수평적 인간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지적한다.

5) 예를 들면, 대표적 기독교상담학 저자들인 Adams와 Crabb은 기독교 상담에서 인간 이해의 기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해에 둔다. Jay E.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More Than Redempt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9), 118-126; Larry Crabb, *Understanding People*, 윤종석 역, 『인간 이해와 상담』(서울: 두란노, 2000), 88.

6) Anthony Hoekema, *Created In the Image of God*,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23-60.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아담의 외로움을 엿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 즉 사람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에서 인간관계의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저자는 아마도 Larry Crabb일 것이다. Crabb은 그의 상담모델에서 관계의 필요들을 강조하고 상호의존의 소중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나는 결국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감성적인 모든 문제들의 뿌리가 함께함의 결여, 즉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연결의 실패’에 있음을 믿게 되었다.”⁸⁾

물론 Kohut의 자기심리학은 인본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은 전무하며 인간관계를 다루는 관점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Kohut은 인간관계와 개인의 핵심인 ‘자기’를 연결시켜 중요한 인간관계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역동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상담영역에 유익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심리학은 다음의 세 가지 영역들, 즉 1)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자기의 의미 2) 관계 속에서 성숙·발달하는 자기 3) 관계 속에 나타난 자기중심적 경향의 영역에서 통찰을 제공하며 기독교상담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2. Kohut 인간이해와 기독교상담과의 연관성

개인의 발달과정을 중요시하는 성격이론들은 일반적으로 개별화

7) Tim Lane & Paul Tripp, *Relationships: A Mess Worth Making*, 이명숙 역, 『관계가 주는 기쁨』 (서울: 미션월드, 2008), 27-28.

8) Larry Crabb, *Connecting: Healing for Ourselves and Our Relationships* (Nashville, TN.: Word Publishing, 1997), 32.

(individuation)와 자율성(autonomy)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대상관계이론 또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별화를 발달단계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Kohut의 자기심리학은 유아기 때 ‘자기’의 형성과 그 후의 건강한 ‘자기’의 발달과정은 다양한 자기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되고 발달된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삶에서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자기’의 발달과정을 통해 확인시키고 있다. Kohut에게 있어 인간관계는 ‘자기’의 의미와 성숙을 결정하는 삶의 매트릭스이다.

1)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자기’의 의미

Kohut의 자기심리학의 인간이해에서 관계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Kohut 이론의 핵심인 ‘자기’의 개념을 ‘자기대상관계(selfobject relationship)’를 통하여 정의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Kohut에게 있어 ‘자기’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강조하는 성격의 삼중구조로 정의된다기보다는 외부의 자기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셀프(self)는 ‘자기’로, 이고(ego)는 ‘자아’로 번역된다. 이는 한국어에서 주로 쓰이는 셀프(self)를 ‘자아’로 번역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⁹⁾ 이는 ‘자기’로 번역되는 셀프(self)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기(self)는 철학, 신학, 심리학 등의 학문영역에서 다르게 정의되고, 그 사용되는 관점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ego와 self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자기(self)’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9) 한국어에서는 ‘자기’는 ‘자기주장’, ‘자기중심’, ‘자기과시’ 등에서 보듯이 자기중심적인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 반면에 자아는 ‘자아존중감’, ‘자아실현’에서 사용되듯이 주로 근본의 ‘나’를 가리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영어에서는 ego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의 ‘자기’를 가리키는 반면에 self는 보다 포괄적인 ‘나’를 가리킨다.

프로이드는 성격의 자아(ego)-원초아(id)-초자아(super-ego)의 삼중구조 모델을 제시하면서, 자아(ego)는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의 갈등 속에서 존재하는 의식구조로 정의한다. 즉, 자아(ego)는 현실원칙에 따라 원초아(id)의 원초적 욕구와 도덕적 원리에 따라 욕구를 통제하는 초자아(super-ego)의 갈등 가운데 중재하고 조정하는 심리적 기능을 가진 의식 속의 심리구조물로 소개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자아가 원초아와 초자아의 갈등 속에서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후에 안나 프로이드에 의해 발전된 자아심리학(ego psychology)은 자아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프로이드의 이론과 차별화하였다. 프로이드가 주장한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의 갈등 속에서 규정되는 자아의 범위를 넘어 '갈등에서 자유로운 영역'으로서의 '자율적 기능'을 하는 자아를 강조한 것이다.¹⁰⁾ 특별히 자아심리학의 대표적 이론가인 Hartman에 의하면, 자아는 갈등을 넘어서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개체이다.

Kohut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간이해에 대한 핵심으로서 '자기(self)'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원초아와 초자아의 갈등의 역동을 넘어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경험하는 개인 정신세계의 핵심으로 보았다. Kohut에게 있어 '자기'는 '정신기구의 내용(a content of a mental apparatus)'¹¹⁾ 또는 '정신세계의 중심(the center of the psychological universe)'이다.¹²⁾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정신세계의 핵심인 자기가 객관적으로 관찰되어 이해되기보다는 공감적 관찰과 경험을 통해 이해된다는 것이다.

Kohut은¹³⁾ 그의 책 *The Analysis of the Self*에서 '자기'는 오직 내성

10) Michael St. Claire, *Object Relations and Self Psychology: An Introduction*, 4th. ed. (Boston: Thompson, 2008), 149.

11) Heinz Kohut, *The Analysis of the Self*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1), xiv-xv.

12) Heinz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7), xv.

13) Claire, *Object Relations*, 150.

(introspection)과 공감적 관찰(empathic observation)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다. 즉, 프로이트가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통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원초아, 자아, 초자아의 구조와는 다르게 경험과 가까운(experience-near) 개념 또는 경험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을 의미한다.

Basch는 ‘자기’의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기는 사물이나 개체가 아닌 개념으로서 인간의 발달과정으로부터 상징적으로 추상화된 것이다. 자기는 다른 모든 경험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자기의 경험’(저자강조)으로 동시에 전 인생을 통해 경험되는 근본적으로 다른 응집과 연속의 감을 제공하는 것이다.¹⁴⁾

그러므로 Kohut의 ‘자기’는 실존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심리적 구조를 의미한다. 즉, 자기의 주체적 경험들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응집력 있게 형성되는(formed cohesive) 하나의 단위(a unit, cohesive in space and enduring in time, which is the center of initiative and a recipient of impressions)이다.¹⁵⁾

Kohut의 관계 속에 규정되는 ‘자기’의 이해는 앞에서 Gardiner가 말한 ‘관계 속에 깊이 내재된(embedded in relationship) 자기’로서 관계 속에 창조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이해와 유사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관계 안에서 그 삶이 규정된다. Kohut은 ‘자기’의 의미를 규정하며 심리학적으로 그 관계 속의 인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

14) Michael F. Basch, “The Concept of Self: An Operational Definition,” in *Developmental Approaches to the Self*, eds. Benjamin Lee & Gil G. Noam (New York and London: Plenum Press, 1983), 53.

15)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99.

2) 관계 속에서 성숙 · 발달하는 자기

Kohut은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의미를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달하고 성숙하는지를 설명해준다. 경험과 지각에 대해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개체인 인간의 자발성과 동기의 중심인 ‘자기’는 유아기 때의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따라 건강하게 발전되기도 하고 병리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Kohut은 건강한 자기를 ‘응집된 자기(cohesive self)’라고 부르고, 병든 자기를 ‘파편화된 자기(fragmented self)’라고 불렀다.

Kohut에 의하면 갓 태어난 유아의 자기는 ‘초보적 자기(rudimentary self)’인데, 이것은 아직 형성되는 않은 잠재적 자기로서 부모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다. 이 초보적 자기는 생후 약 2년 동안 타인(주로 부모)과의 공감적 관계 안에서 성숙한 자기, 즉 응집된 자기(cohesive self)로 발전한다. Kohut은 이 응집된 자기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대상(주로 부모)을 자기대상(selfobject)이라 명명하였는데, 유아는 이 자기대상(selfobject)과의 경험을 통합 또는 융합하여 응집된 건강한 자기를 형성해간다. 더 구체적으로 유아는 자기대상의 공감적 반응(empathic response)을 경험함으로써 응집된(cohesive) 건강한 자기를 만들어간다.

Kohut은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자기를 이루는 ‘정신적 구조의 핵’¹⁶⁾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의 성숙과정을 통해 설명한다. 즉, 자기는 ‘과대적-과시적(grandiose-exhibitionistic) 자기’의 축과 ‘이상화된 부모의 원상(idealized parent-*imago*)’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강한 ‘응집력 있는 자기’로 발달하려면 ‘자기’의 두 축이 적절하게 잘 발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중축의 자기의 바람직한 발달은 부모(자기대상)의 공감적 역할과

16) Kohut은 이 정신적 구조를 이루는 중심의 기본 단위를 핵자기(nuclear self)라고 불렀다. Heinz Kohut, “On Courage (early 1970s),” in *Self Psychology and the Humanities: Reflections on a New Psychoanalytic Approach*, ed. Charles B. Stoizer (New York: W. W. Norton, 1985), 10.

기능에 달려있다.

Kohut에 의하면, 과대적-과시적 자기의 축은 유아가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전능한 존재라는 인식을 말한다.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아의 욕구를 부모가 공감적으로 반영(mirroring)하며 받아주면, 이 과시적 자기가 발달하여 건강한 자존감과 희망과 포부를 갖는 성숙한 자기애로 변화된다. 성숙한 자기애에는 창의력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긍정적이며 긴장과 갈등을 심리적으로 조절하는 자기의 특징들을 말한다. 또한 과시적 자기는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부모를 전능한 존재로 이상화하고, 이것을 부모가 잘 받아주어 유아의 이상과 융합되면 유아의 이상화된 부모 원상은 건강한 이상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성숙한 자기애로 변형된다.¹⁷⁾

자기의 발달과 성숙과정에서 기독교의 인간이해와 성숙과정 간에 유비적 해석(analogous interpretation)이 가능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건강한 자기를 형성하는 핵심요소로서의 자기대상의 공감적 반응과 변형된 내재화 과정이다. 즉, '자기'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공감적 기능을 내재화하여 성숙해가는 과정의 설명은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비적 해석과 통찰을 제공한다.

자기대상은 주로 부모 중 한 명을 말하는데, 유아에게 거울 반응(mirroring response)이나 안아주기(holding), 수용(acceptance)과 같이 유아의 공감의 필요를 시기적절(phase-appropriate)하게 채워주는 대상이다. 유아의 발달 단계와 과제에 적절한 공감적 반응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유아의 자기대상은 항상 완벽하게 공감을 할 수가 없고 공감에 실패하기도 하는데, 이 때 유아는 좌절(frustration)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유아와 부모 사이에 공감적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이 비외상적(non-traumatic) 좌절은 오히려 유익한 '최적의 좌절(optimal frustration)'이 되어 유아의 자기발달에 건강하

7) 홍이화, 『하인즈 Kohut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1』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46.

게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최적의 좌절이 건강한 자기에 기여하는 과정은 ‘자기대상 기능의 변형적 내면화 (transmuting internalization of selfobject functions)’의 개념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즉 유아가 두려움과 긴장을 느낄 때 엄마와 같은 자기대상이 공감적 반응을 통해 제공해주는 ‘진정시키고 누그러뜨리는 기능(soothing and relaxing functions)’을 점차 유아가 내면화하여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유아가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때 안아주고 공감해주며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엄마의 기능을 서서히 유아의 자기가 내면화하여 자기의 것으로 변형시켜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잠을 잘 수 있게 된다.¹⁸⁾ 응집력 있는 자기의 구축은 자기대상 기능의 변형적 내면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위 Kohut의 자기발달과정은 그의 인간이해가 불완전한 자기에 대한 전제를 깔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적 자기는 불완전하고 약하여 자기대상의 공감적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며 자기대상의 공감적 기능이 변형, 내재화될 때에만 성숙한 자기로 발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대상의 공감적 반응도 항상 일정하고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기독교의 인간이해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임을 지적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에 단절과 손상을 가져왔음을 말한다. Kohut은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 결함(defect)을 ‘자기’의 발달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유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연상케 한다. 비록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좌절은 오히려 최적의 좌절(optimal frustration)이 되고 이 좌절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가는 성장에 이른다는 것이다. Anothoy Kill이 주장한대로 하나님을 자녀들을 변함없이 격려하고 지지하

18) 홍이화, 『하인즈 Kohut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1』, 79.

며 돌보는 영원한 자기대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¹⁹⁾

3)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기중심적 문제

(1) 자기의 결함(defect)에 의한 인간의 자기애적 성향

Kohut의 자기심리학 형성이 그의 나르시시즘 내담자의 분석에 기인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기중심, 자기몰입으로 특징지어지는 자기애적 문제는 죄인된 인간들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Kohut이 자기의 결함에 기인한 자기애적 성향에 관한 심리적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죄인으로서 겪는 다양한 심리적 현상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Kohut에 의하면 자기의 발달과정에서 부모의 공감적 보살핌이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결여될 때 유아는 자기애적 외상을 입게 된다. 이것은 자기구조의 발달에 결핍(deficit)이 생기는 것으로 '자기의 결함(defect)'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애적 외상은 유아의 과대적 자기와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건강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원초적 자기애에 고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과대적 자기가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건강 염려증이 생기거나 자기에게 과도하게 몰두함으로 수치심과 당황의식이 강화되며 외부의 충격에 약해서 허무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경험한다.

특별히 Kohut은 과대적 자기의 자기애적 욕구가 표현되지 못하고 '부정'되거나 '억압'될 때 자기가 분열(split)된다고 보았다. 과대적 자기가 방어적으로 부정되면 '자기'에 수직적 분리(vertical split)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과대적 자기의 거만하고 과시적인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자기로부터 분리되어 공존하게 되는 상태이다. 즉, 현실적인 자기로부터 차단되어 의식 속에 남아있어 허풍을 떨거나 지나치게 독단적 과대적 주장을 하게 되

19) Anthony Kill, "Kohut's Psychology of the Self as a Model for Theological Dynamics,"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41, no. 1 (1986): 25.

고 이 때 현실적 자기는 무기력감이나 공허감을 경험하게 된다. 과대적 자기가 억압되면 자기구조가 수평적으로 분리(horizontal split)되는데, 이는 줄어든 자신감, 막연한 우울감, 의욕상실, 주도성의 결여 등 전반적인 자기애적 결핍 증상으로 나타난다.²⁰⁾

이상화된 부모원상이 잘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유아는 원초적 자기대상에 고착된 채 평생 자기대상을 갈망하고 추구하면서 그를 대체할 만한 다른 대상들에 의존하게 된다. 자기구조를 배우기 위한 시도이다. 그 시도 중 하나로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중독자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내적으로 결핍된 달램과 진정의 효과를 마약에서 찾는다. 끊임없이 외부의 이상적인 대상들을 갈급해하는 것은 스스로 부여하지 못하는 인정과 지도력을 얻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한다.²¹⁾

현시대는 자기애적 문화로서 성격문제에 있어서도 자기애적 성향이 만연해있음이 보고되고 있다.²²⁾ Donald Capps에 의하면 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도덕성에 기초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죄의식에 관심이 없고 판단 기준이 다분히 주관적이다. 이들의 관심과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인 것이다.²³⁾ Kohut의 심층적인 자기애적 성향의 문제에 대한 분석은 다분히 정신분석학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자기애적 성향은 근본적으로 깊은 내면의 자기의 존재론적 문제이고, 이것은 죄인으로서 갖는 속성이다. Kohut은 깊은 내면의 결핍을 심리적인 정신병리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2) 관계 속에 경험된 수치심의 이해

Kohut의 자기애적 문제의 기술에서 기독교적 내용과 가장 연관이 되는

20) 홍이화, 『하인즈 Kohut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1』, 87.

21) 홍이화, 『하인즈 Kohut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1』, 88.

22) Christopher Lasch, *Culture of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Expectations* (New York: Warner Books, 1979), 73-74.

23) Donald Capps, *The Depleted Self: Sin in a Narcissistic Age* (Philadelphia: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1992), 11.

것은 수치심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Kohut은 자기애적 장애와 관련된 주요한 자기의 반응으로 수치심을 들고 있다. 그에게 있어 수치심은 자기의 존재, 특별히 전체 자기에 대한 핵심적 경험이며, 그 ‘자기’는 수치심 안에서 자신의 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²⁴⁾

이러한 Kohut의 기여는 과거의 경험과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주로 다루는 수치심에 대한 일반적 이해보다 더 근원적으로 자기구조의 근본적인 결함을 통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한다는 것에 있다. Kohut은 수치심이 근본적으로 병리적인 자기구조와 수치심의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기능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에게 있어 수치심은 감정적이 부분이라 아니라 근본적 인간 본연의 결핍과 잘못됨(wrongfulness)에 대한 ‘존재’에 관한 것이다.

Kohut에 의하면 자기애적 상처로 인한 자기의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수치심에 대한 반응에 취약하다. 유아의 과시적 욕구가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 자기에 몰두하는 과도한 자기의식으로 인해 내면의 무가치함과 수치심을 경험한다.²⁵⁾ 또 다른 자기구조의 축인 이상화 자기대상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자기가 성숙되고 발달하지 못하여 긴장을 느낄 때 조절하지 못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²⁶⁾ Kohut에게 있어 수치심은 이러한 자기애적 결함에서 오는 무가치함과 부적절함을 방어하기 위한 표현이다. 방어적 행동은 자신을 과시하면서 수치심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수치심을 전가하는 것으로²⁷⁾ 이는 주로 통제, 완벽주의, 격노, 경멸, 과도한 친절 등으로 표현된다.

24) 홍이화, 『하인즈 Kohut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1』, 115.

25) Heinz Kohut, *The Analysis of the Self*, 144.

26) Heinz Kohut, “Addictive Need for Admiring Other in Regulation of Self-Esteem,” in *The Kohut Seminars on Self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with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ed. Miriam Els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7), 113–132.

27) 홍이화, 『하인즈 Kohut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1』, 125.

성경에서도 수치심을 창세기와 계시록에 걸쳐 인간의 주요 감정으로 다루고 있다. 성경에 의하면 온전한 모습 중의 하나를 수치심이 없는 상태이며(창 2:25, 계 3:18, 16:15) 인간이 타락한 후 겪는 최초의 감정 중의 하나가 바로 수치심이다(창 3:10).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Kohut의 인간구조의 근본적 결핍으로 인한 수치심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로 인해서 생기는 왜곡된 관계의 결과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Donald Capps는 그의 저서 *Depleted Self* 에서 Kohut의 수치심의 분석에 기초하여, 목회상담과 기독교상담에서 수치심을 통한 인간이해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⁸⁾ 이러한 Capps의 주장은 수치심이란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감정으로서 거부(rejection)당할 때나 열등의식(inferior), 무가치함(worthlessness), 실패(failure)와 연관되며 보통 죄나 죄책감과 연결되어 나타나지만 죄책감보다 더 깊숙이 사람의 마음과 삶에 자리에 자리잡아 쉽게 지워지지 않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Capps의 관점을 체면문화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 적용할 때, 한국 기독교상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홍이화는 체면문화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치심의 문제는 한국인의 정서에 깊게 박힌 내면적 정서라고 지적한다.²⁹⁾ 체면은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수치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수치심에 대한 이해는 한국인의 이해와 상담의 접근에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다.

Kohut의 이론을 통해 수치심을 이해할 때, 건강한 자기의 결여와 그에 따른 수치심의 문제는 현대문화의 경향인 부모의 불충분한 유아의 양육시간과 자녀를 향한 공감의 부재가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Kohut은 프로이드의 죄의식의 문제를 도덕적 원리를 이용한 부모의 과도

28) Donal Capps, *The Depleted Self: Sin in a Narcissistic Age* (Philadelphia: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1992).

29) 홍이화, 『하인즈 Kohut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1』, 128.

한 개입(자극)(over-stimulation)과 간섭(intrusion)으로 해석하며 수치심의 경험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을 이끄는 자극의 결핍(under-stimulation)으로 보았다.³⁰⁾

이러한 통찰을 다시 한국의 기독교상담에 적용하면 한국의 가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사이 등 가족 구성원간의 자극이 결핍되기 쉬운 상태이다. 한국가정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과 공감의 결여되어 있다. Kohut의 통찰을 빌리자면 가정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건강한 자기의 문제와 자기애적 문제는 자녀들 안의 수치심에 따른 분노, 경멸, 무가치함, 존재감의 상실 등의 정서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Kohut의 이론들의 기독교상담과의 연관가능성을 기독교의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에 따른 관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해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사실 Kohut의 이론은 오히려 실제 임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감적 자세와 공감에 의한 치유기능에 대한 논의들은 일반상담과 기독교상담의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다.³¹⁾ 이러한 인간이해와 임상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 기여를 고려할 때 Kohut과 기독교상담과의 긍정적 연관성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3. Kohut의 인간이해와 기독교상담과의 부조화

Kohut의 이론이 기독교상담에 항상 긍정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자기심리학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신앙과는 별개로 인본주의적 전제에

30) Kirk A. Bingaman, "The New Narcissist and Pastoral Counseling," *Pastoral Psychology* 48, no. 5 (2000): 351.

31) 예를 들면, 김준, "교회의 돌봄 사역: 하인즈 Kohut의 자기심리학과 신약성경의 제자의 모습을 통한 돌봄 사역자의 자세",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18권(2010): 9-33.

서 출발하였으며, 실제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자기심리학의 자기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신앙과는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심리학이론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제한되어야 한다.

1) 관계의 강조에서의 과도한 자기의 강조

Kohut의 인간이해의 핵심은 자기대상의 공감적 반응을 필요로 한 ‘자기(self)’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의 공허함(emptiness of self)’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자기’는 지속적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이다. ‘자기’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 거울반응, 받아줌, 존중의 공감을 필요로 하고 이것이 결핍되면 건강한 자기를 이루기가 어렵다. 인간은 모두가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이해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의 공허함’의 강조는 서구의 문화와 심리치료적 문화(therapeutic culture)에서는 낯선 것이 아니다. Cushman은 이러한 ‘공허한 자기’에 관한 강조는 심리적, 물질적으로 채워주기를 갈망하는 위험한 문화적 산물임을 지적한다. Cushman에 의하면 심리학자들의 잘못된 심리적 선전은 자아에 오히려 공허하며, 깨지기 쉬운, 우울한 젊은 세대를 만들어 내었다.³²⁾ Cushman의 이론을 인용하며, Paul Vitz는 더 나아가 ‘공허한 자기’를 강조하는 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임을 지적한다.³³⁾

이와 같은 인간이해는 기독교상담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Larry Crabb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관계의 필요가 있고 이 필요는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하나

32) Philip Cushman, “Why the Self is Empty,” *American Psychologist* (May 1990): 599.

33) Paul Vitz, *Psychology as Religion*, 장혜영 역, 『신이 된 심리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98-99, 213-219.

님이 우리가 즐기도록 설계한 것을 염원한다. 그것은 긴장이 없는 관계로서 깊고 사랑이 넘치는 수용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간절한 요구이다.”³⁴⁾

이러한 Crabb의 인간이해에 대하여 Ed Welch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이해의 한 부분을 과도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Welch에 의하면 인간이해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성경적으로 균형잡힌 인간이해가 가능함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그는 한 여성의 상담사례를 들며 공허한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여성이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기독교의 관점과 반대되는 상담을 하게 됨을 경고한다.³⁶⁾

기독교상담이 내담자의 관계의 필요를 해결해주고 상담의 목표를 자기의 존중으로 설정한다면 인본주의적 상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교회에 적용된다면 교회가 각 개인의 관계적 필요와 자존감을 세우는 데 주력을 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기의 성숙과 변화는 부차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김준은 한때 대표적인 Kohut의 이론에 기초한 교회상담 목사인 로버트 랜덜(Robert Randall)의 건강한 교회에 대한 입장에 대해 Kohut의 이론을 기독교적 상황에 과도하게 적용한 전형적인 예임을 지적한다.³⁷⁾ Randall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를 그들의 관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보며, 교회는 이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음을 주장한다.

34) Lawrence J. Crabb, Jr., *Inside Out*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1988), 54.

35) Edward T. “Welch, Who Are We? Needs, Longings, and the Image of God in Man,”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3, no. 1 (1994): 36.

36) Welch, “Who Are We?” 35–36.

37) 김준, “교회의 돌봄사역”, 20–21.

사람들은 교회에 자신들이 이해되기를 바라며 교회에 나온다. 그들은 이해되고 있음을 느끼기 위해 자신들의 일상의 필요를 가지고 온다. 그들의 채워지지 않고 짓밟힌 필요들이 이해되길 바라며 나온다. 그들은 이곳(교회)에서 이 사람(목사)과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들에게 동조하는 마음을 발견하길 원한다. 그들에게 동정적인 마음을 가진 특별한 존재들인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이해하고 돌보아야 하는 존재들로 기대된다. … 그들이 그들을 이해하는 실패할 때 그들은 상처를 받는다.³⁸⁾

이러한 Randall의 자기심리학의 무리한 적용은 교회사역의 방향에 관한 것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일부 기독교상담학자들의 경우 자기심리학을 성경에 여과없이 직접 적용하여 성경의 원래의 메시지와 의도를 손상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2) Donald Capp의 예로 본 자기심리학이론의 부적합한 적용

Kohut의 이론과 수치심의 이해와 연관하여 기독교상담의 관점에서 연구한 대표적 저작은 Donald Capps의 *Depleted Self* 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Kohut의 이론을 심리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있지만 기독교적 입장에는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Kohut은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기독교의 신앙과 죄의 이해와는 무관하게 '자기'의 근본적 결핍과 연관된 수치심의 경험을 분석한다. 그러나 성경은 수치심과 죄의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수치심이 없었지만(창 2:25) 죄가 들어온 후에 수치심도 함께 나타남을 기록하고 있다. 수치심이 좌절과 실패, 거절됨, 모욕 그리고 무가치함을 경험하며 느끼는 인간의 뿌리깊

38) Robert L. Randall, *What People Expect from Church: Why Meeting People's Needs Is More Important Than Church Meeting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3), 25-26.

은 감정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연관된 죄의 문제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의 과도한 죄의 강조에 대해 Capps는 이제 죄 대신 수치심을 강조해야 할 것과 죄에 기반을 둔 신학을 수정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의 시대에는 잘못된 점을 죄책감보다는 수치심으로 더 경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미있고 관련성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죄를 수치심의 경험과 연관시켜야 된다. 결코 죄책감을 우선으로 하지 않은 이것은 우리의 신학의 재정립을 포함한다. 이 재정립은 우리 신학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한다.³⁹⁾

그의 Kohut의 자기와 수치심의 이해의 적용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심리학의 관점을 직접 적용한 성경의 왜곡된 해석이다. 예를 들면, Capps는 ‘자기의 치유’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의 요나 이야기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성경의 이해와는 다르게 요나를 개인적 거절을 두려워하는 겁 많은 자기애주의자로 묘사하며 선지자로서의 요나의 지위를 격하시킨다. 이는 Capps가 선지자 요나의 잘못을 Kohut의 해석에 끼워 맞춰 공감적 대상을 간절히 찾는 자기애적 성격의 인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결핍된 자기애주의자이며 권위적 존재로 묘사하며, 하나님이 거울의 반응을 통한 존중을 보여주기보다는 불쌍한 요나를 오물과 같이 다루며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다. 니스웨가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았을 때 요나의 상태를 Capps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한다.

결과는 예상할 수 있다. 요나는 고갈되고 감정적으로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또한 분노했다. 그의 과시적 자기는 니스웨를 향한 선교에서 억압되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그의 자기를 확증했다. 하나님은

39) Capps, *The Depleted Self*, 14.

그를 교묘하게 낮추었다. 하나님은 요나를 속이고 그의 역할을 하려는 그의 결단을 착취하고 그를 뻔뻔스럽게 이용했다.⁴⁰⁾

계속해서 그는 요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권위주의자 (autonomous authority)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을 차가운 권위주의자이며 '수치심을 이용해 하급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⁴¹⁾로 묘사하는 것은 무리한 심리학적인 해석의 전형으로서 성경이 원래 말하는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담고 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서 성경저자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 하며, 어떤 개인의 심리학적 해석의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심리학적 해석을 하기에는 인물에 대한 자료가 대단히 부족하여 상상과 추측에 의존한 억지의 해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apps가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강조하는 방식과는 반대로, 성경은 수치심이 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한숙자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사건을 통해 죄책감과 수치심이 연속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⁴²⁾ 죄와 수치심의 일관된 연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와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복음적 패러다임과도 일치한다. 성경이 수치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복음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것을 통해 수치심의 문제의 모든 부분이 예수에게로 집중됨을 보게 된다.⁴³⁾ 즉, 예수의 탄생은 처녀로부터의 부끄러운 탄생이었고, 그는 수치심에 물든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수치스러운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

40) Capps, *The Depleted Self*, 126.

41) Capps, *The Depleted Self*, 127.

42) 한숙자,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치유를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상담」 제16권 (2012): 245.

43) Edward T. Welch, *Shame Interrupted*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12), 46.

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예수가 당한 수치는 우리의 수치와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고, 그는 우리의 수치와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 예수의 수치와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심이 씻겨져 나가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명예를 얻게 한다.⁴⁴⁾

성경은 수치심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한다. 즉 죄인으로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무가치함, 거부당함, 잘못된 듯한 감정으로 인한 수치심이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명예와 존중을 받았다. 성경은 이러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과 제사장으로,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무가치한 삶을 살던 자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가난한 자에서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약속들의 성취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으로부터 얻은 명예와 회복으로 가득 차 있다.

III. 닫는 글

인간의 이해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서 핵심적인 영역이다. 이 글에서는 일반 정신의학, 임상심리 그리고 기독교상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Kohut의 인간이해를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Kohut의 인간이해의 특징은 인간관계의 역동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자기(self)'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의 근본적 인간이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관계의 존재로서의 인간과 여러 면에서 연관성을 가지며 기독교상담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Kohut의 과도한 자기의 강조와 자기심리학의 이론의 무비판적인 사용은 오히려 성경의 원래의 메시지가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

44) Welch, *Shame Interrupted*, 107.

하였다.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기독교의 인간이해와 심리학적 인간이해 사이에는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 긴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독교상담의 실제 현장에서 심리학적 성격이론들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상담사례의 연구를 통해 심리학과 기독교적 인간이해를 비교, 분석한다면 이 두 관점의 인간이해를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 준. “교회의 돌봄 사역: 하인즈 Kohut의 자기심리학과 신약성경의 제자의 모습을 통한 돌봄 사역자의 자세”.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18권(2010): 9-33.
- 홍이화. 『하인즈 Kohut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1』.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 한숙자.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치유를 위한 기독교상담학적 접근”.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상담』 제16권 (2012): 225-249.
- Basch, Michael F. “The Concept of Self: An Operational Definition.” In *Developmental Approaches to the Self*. eds. Benjamin Lee & Gil G. Noam. New York and London: Plenum Press, 1983, 7-58.
- Bingaman, Kirk A. “The New Narcissist and Pastoral Counseling.” *Pastoral Psychology* 48, no. 5(2000): 349-358.
- Capps, Donald. *The Depleted Self: Sin in a Narcissistic Age*. Philadelphia: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1992.
- Gardiner, Judith K. “Self Psychology as Feminist Theory.” *Signs* 12, no. 4 (1987): 761-780.
- Hoekema, Anthony. *Created In the Image of God*.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Hummel, Leonard M. “Heinz Kohut and Empathy: A Perspective from a Theology of the Cross.” *Word & World* 21, no. 1 (2001): 64-74.
- Johnson, Eric.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2nd. ed. 김찬영 역.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 Kill, Anthony Steven. “Kohut’s Psychology of the Self as a Model for Theological Dynamics.”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41, no. 1 (1986): 17-32.
- Klein, George S. “Two Theories or One?”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37, no.2 (1973): 102-132.
- Kohut, Heinz, *The Analysis of the Self*.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 Press, 1971.
- Kohut, Heinz. *The Restoration of the Self*.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7.
- Kohut, Heinz, & Paul H. Ornstein. *The Search for the Self : Selected Writings of Heinz Kohu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8.
- Kohut, Heinz. "Two Letters." In *Advances in Self Psychology*. ed. Arnold Goldberg.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80, 449–469.
- Kohut, Heinz. "Introspection, Empathy, and the Semicircle of Mental Health." In *Empathy*. eds. J. Lichtenberg, M. Bornstetin & D. Silver. Hillsdale, NJ.: Analytic Press, 1981, 81–100.
- Kohut, Heinz, Arnold Goldberg, & Paul E. Stepansky.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Koppel, Michael S. "Self Psychology and End of Life Pastoral Care." *Pastoral Psychology* 53, no. 2 (2004): 139–151.
- Lee, Ronald R. & Martin Colby. *Psychotherapy after Kohut: A Textbook of Self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1991.
- Randall, Robert L. *What People Expect from Church: Why Meeting People's Needs Is More Important Than Church Meeting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3.
- Welch, Edward T. "Who Are We? Needs, Longings, and the Image of God in Man."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3, no. 1 (1994): 25–38.
- Welch, Edward T. *Shame Interrupted*.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12.

【 Abstract 】

Heinz Kohut's Understanding of Personality and Christian Counseling

Jun Kim

Chongshin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edness and limitations of Heinz Kohut's Self Psychology, an influential psychoanalytical theory, and its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in relation to Christian Counseling. The way to understand human personality tends to decide theories and practices of counseling. Christian counseling ought to use Christian concepts of person, but often borrows the concepts of psychological theories on human personality as well. Yet, there is inevitable tension between Christianity and Psychology in using both views for Christian counseling, and this study is an attempt to interpret and assess Kohut's understanding of person in the light of Christian counseling.

Specifically, this study first points out that biblical understanding of person is based on the notion that person i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which implies that people are relational being and sinners as well. Then it claims that Kohut's theory confirms this implication and describes people's limitedness as sinners by noting Kohut's contributions to explain the meaning of self, development of self, and self centeredness of self in the light of relational dimensions. However, the study claims that Kohut's emphasis on self is not in accordance with Christian understanding. The study argues that Donald Capps' use of self psychology in interpreting the Bible could be harmful to Christianity. Finally, this article concludes by suggesting a qualitative case study that examines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counseling and self psychology in future.

Key words: Heinz Kohut, self psychology, personality theory, Image of God, shame